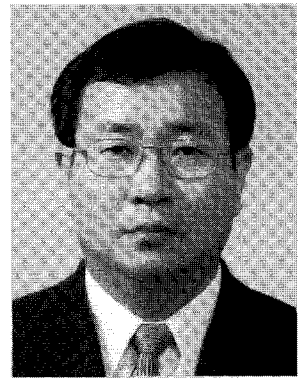


양계농가의 임무 및 권리는 방역, 차단방역

김 기 석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수의학박사



양계를 비롯하여 양돈, 낙농, 비육 등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은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방역이라고 단언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양계 독자들 거의 모두가 틀린 말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양계인 모두는 현대 양계산업에 있어서 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필자 역시도 수의사로서 양계 산업에 관여한 이래 지금까지 병성감정이나 농가 방문 또는 크고 작은 각종 질병관련 세미나 등을 통하여 많은 양계인 들을 만나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방법에 관한 기술을 얘기하면서 한번도 빠짐없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하는 말이 방역이었으며 이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방역이라는 말의 뜻은 방지할 防과 돌림병(전염병) 疫, 즉 전염병을 막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다 더 강한 의미 부여를 목적으로 차단방역이라는 어휘를 생산하여 정부 당국은 물론 축산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우리 양계인들에서 문제는 방역 또는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과 실제 활용 면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처럼 원활하지 못하고, 머리로 알고는 있으나 실행이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방역의 가장 기본은 소독과 이

동 통제 그리고 감염원 제거(도살처분)라 하겠다. 최근 2년간에 있어서 우리 양계인들은 오래전부터 조마조마 하게 가슴 조여 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경험하는 불행을 겪었으나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심한 발생 피해를 받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10여개국 나라들과는 다르게 지난해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한 건의 발생도 없이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발생농장은 물론 주위 반경 3km이내 사육 중인 닭, 오리 등 모든 감염원을 도살 처분하는 한편 이로부터 반경 10km까지는 감염원으로 역할이 가능하거나 또는 전파매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 및 무생물마저도 출입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무제한이라 할 정도로 소독 약제를 통한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하였던 일이다.

이와 같이 정부를 비롯한 여러 방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더불어 우리 양계인들 스스로가 이렇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박멸의 성공을 익히 체험하였음에도 최근에 저병원성 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다수의 산란계 농가에서 산란감소 등의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또한 뉴캐슬병을 비롯하여 전염성기관지염 및 전염성 F낭병 등 각종 전염병이 산란계 나 육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벌써 우리 양계인들이 바로 일년 전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잊고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들 질병에 대한 방역에 소홀하기 때문일 것이다. 질병의 예방을 백신접종이나 약제의 투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내 농장에 닭이 들어와서 출하하는 날까지 외부와의 접촉은 최대한 금지하여 다른 농장 사람이나 약품판매업자는 물론 수의사조차도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여와서는 아니 되며 또한 내 자신이나 가족들 역시 다른 사람의 농장이나 질병 오염이 의심되는 곳은 피하고 외출에서 돌아 올 경우에는 예외없이 소독하여 외부의 질병이 내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역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임무인 동시에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을 대충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양계업을 대충한다는 것이며 이는 마치 이미 승패가 예견되는 전쟁에서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오늘날 인류역사상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교통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사람을 위시한 각종 동식물의 빈번한 교류 등은 세계 인류 문화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한편으로 이들 동식물에 감염시켜 피해를 입히는 각종 악성 질병의 원인체들이 무시로 출입하는 상황에서 국가간에는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이들의 유입을 적극 차단해야 함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상재하는 질병들에 대하여 우리 양계인들 각자는 지금까지 내 농장에 없던 외부의 질병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며 농장내 발생이 있는 상재성 질병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내·외부 질병의 차단이나 대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방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 양계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방역 실천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 방역으로 시작하고 방역으로 끝을 맺는 양계를 영위할 때만이 각 개인 농장은 물론 국내 양계산업 전체의 희망과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양계**